

【논 문】

『朝鮮史』(조선사편수회 간행) 편찬과 만선사의 상관성

—『朝鮮史』 제 3편을 중심으로*

정 상 우**

┌ 차 례 ─┐

- I. 서언
- II. 한국사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의 교차
- III. 『朝鮮史』 제 3편과 만선사의 상관성
- IV. 결어

국문초록

이 논문은 대표적인 만선사학자였던 이나바 이와키치가 편찬을 총괄한 조선사편수회 간행 『朝鮮史』 제 3편(고려시대)과 만선사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이다. 『朝鮮史』 편찬을 위해 조선에 부임한 이나바는 이마니시 류우로 대변되는 이전 연구자들과 한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강점 이후 조선 총독부에서 주도한 각종 조사 사업이나 ‘반도사 편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이마니시는 일본과 종족적으로 동일한 반도 남부의 ‘韓種族’을 중심으로 한국사를 서술하며 고구려로 대변되는 북방의 역사를 한국사에서 배제하였다. 반면 이나바는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이 한국사를 ‘일본사’의 범주에서 접근하는 것을 비판하며 한국사를 대륙-만주와의 관련 속에서 ‘東洋史化’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한국사를 연구함에 있어 대륙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반도라는 ‘토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과 만주와의 불가분한 관계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나바가 주임을 맡은 『朝鮮史』 제 3편은 그가 품고 있던 만선사적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 이 논문은 2014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동북아2014-기획-8).

**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사학전공.

이나바는 『朝鮮史』 제 3편의 주임을 맡기 이전부터 고려시대의 특징으로 거란, 여진, 몽골 등 만몽지역의 민족이 끊임없이 등장했던 것을 꼽았으며, 이러한 그의 생각은 『朝鮮史』 제 3편에 반영되었다. 편찬 관계자들이 『朝鮮史』 제 3편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건으로 遼·金·宋·元 등과 고려와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고 있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른바 ‘대몽항쟁기’, 『朝鮮史』 편찬 관계자들이 중요시 했던 것은 고려의 항쟁이나 국내 정치 변화를 알려주는 사료가 아니라 만선사적 조망에서 중요시되었던 일본과 元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료들이었다. 이는 일본사의 타자로서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漢民族, 蒙古民族, 東胡系民族 3자의 관계로 재구성하는 가운데 일본사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이나바의 만선사적 구상, 또 『朝鮮史』 제 3편이 간행될 당시 발표된 이나바의 연구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들이었다.

한편 고려 전기의 사료는 매우 부족하며 후기로 감에 따라 문집류를 비롯하여 금석문들도 증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朝鮮史』 제 3편에서 활용한 사료들은 그와 반대 경향을 보인다. 즉 후반으로 갈수록 한국측 사료, 특히 금석문의 활용은 감소하는 반면 대륙과 일본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에 필요한 외국 사료, 특히 일본측 사료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료의 활용 역시 간접적으로나마 『朝鮮史』 제 3편 편찬시 여기에 실을 사료를 선별함에 있어 만선사적 관점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이나바는 자신이 추구했던 만선사적 관점에서 고려시대를 조망하는 가운데 『朝鮮史』 제 3편의 후반으로 갈수록 元 또는 일본과 관련된 사건을 자세히 정리하고 그와 관련된 사료의 소재를 알려주어, 향후에도 이를 통해 이 시기가 조명되기를 희망했다고 하겠다.

주제어: 『朝鮮史』 제 3편, 이나바 이와키치, 이마니시 류우, 만선사

I. 서언

19세기 말 이후 식민지기를 거치며 일본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한국사 연구는 ‘식민사학’(이하 ‘·’ 생략)이라 통칭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 초기부터 침략과 식민통치의 변명·정당화를 위해 한국사를 왜곡했다고 이야기되었고, 일본인들의 한국사에 대한 인식은 사론·사관에 입각해 ‘반도적 성격

론', '타율성론', '사대주의론', '정치성론', '당파성론' 등으로 정리되었으며, 이러한 이해 방식은 지금까지도 일반적이다.¹⁾ 식민사학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고구려사를 둘러싼 중국과의 역사분쟁을 거치면서 20세기 초반 일본이 만주에서 이권을 확보하며 제기했던 만주와 조선에 대한 역사 인식 - 바로 '滿鮮史'(이하 '생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대해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었다.²⁾

한편 식민사학을 진척시킨 여러 단체·사업들 가운데 기간과 예산의 면에서 최대를 과시하는 것은 朝鮮史編纂委員會·朝鮮史編修會(이하 각각 '편찬위원회', '편수회')를 거치며 진행된 『朝鮮史』 편찬 사업이다. 1922년에서 1938년까지 17년간 100여 만원의 예산을 소요한 이 사업은 총 6편 35권 24,000여 페이지라는 방대한 분량의 『朝鮮史』를 남겼다.

그런데 편찬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의 역사 편찬을 시도하였다. 1915년 이래 중추원에서 주도한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이

1) 식민사학에 대한 문제제기는 4·19 의거와 한일의 국교가 재개된 196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문제시 되며 다시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주요한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李基白, 1961, 「緒論」, 『國史新論』, 泰成社, 1~10쪽; 金容燮, 1966, 「日本・韓國에 있어서 韓國史敍述」, 『歷史學報』 31; 洪以燮, 1969, 「植民地의 史觀의 克復」, 『亞細亞』 3월호; 李龍範, 「韓國史의 他律性論 批判」, 同上書; 李基白, 「事大主義論의 問題點」, 同上書; 金泳鎬, 「韓國史 停滯性論의 克復의 方向」, 同上書; 李基白, 1987, 「半島의 性格論 批判」, 『韓國史 市民講座』 1, 一潮閣; 姜晉哲, 「停滯性理論 批判」, 同上書; 李泰鎮, 「黨派性論 批判」, 同上書.

2) 이미 1960년대 旗田巍, 김용섭, 이용범 등은, 만선사는 일본의 대륙 침략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한국사의 타율성을 강조한 사관이라며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金容燮, 위의 논문; 李龍範, 위의 논문; 旗田巍, 1969, 「『滿鮮史』의 虛像」, 『日本人の朝鮮觀』, 勁草書房.) 근래의 연구도 그 연장선상에서 만선사의 형성, 만선사에서 한국사의 양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만선사의 근대 역사학적인 성격도 주목하고 있다(靑柳純一, 2000, 「白鳥庫吉と『滿鮮史』學의 虛像」, 『人文論叢』 55-1; 瀧澤規起, 2003, 「稻葉岩吉과 滿鮮史」 『韓日關係史研究』 19; 寺內威太郎, 2004, 「滿鮮史'研究と稻葉岩吉」, 『植民地主義と歴史學』; 박찬홍, 2007, 「滿鮮史觀에서의 한국고대사 인식 연구」, 『한국사학보』 29; 櫻澤亞伊, 2007, 「滿鮮史觀의 再檢討 - 滿鮮歷史地理調查部と稻葉岩吉を中心として」, 『現代社會文化研究』 39; 櫻澤亞伊, 2009, 「이나바 이와키치의 '만선불가분론」,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박찬홍, 2009, 「白鳥庫吉과 '滿鮮史'學의 성립」, 『동북아역사논총』 26; 정상우, 2010, 「稻葉岩吉의 '滿鮮史' 체계와 '朝鮮'의 재구성」, 『歷史教育』 116; 井上直樹, 2013, 『帝國日本と'滿鮮史' - 大陸政策と朝鮮・滿洲認識』, 塙書房; 정상우, 2013, 「滿鮮史와 日本史의 위상 - 稻葉岩吉의 연구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史學報』 28.

하 ‘반도사 편찬’)이 그것이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알려졌듯이 고대에서 강점에 이르는 식민지 조선의 역사를 ‘日鮮의 同族’ 관계와 조선의 정치적 혼란을 부각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이 사업은 미완인 채로 중단되었다. 『朝鮮史』 편찬은 특정 歷史像에 기초하여 한국사를 제시하고자 했던 ‘반도사 편찬, 바로 한국사에 대한 통사적 서술의 실패를 경험 한 이후 새롭게 기획·진행된 사업으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지향과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새로운 역사편찬사업의 방식은 역사의 연구와 서술을 통해 특정한 歷史像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사료의 수집·정리 및 간행이었고, 이를 수행한 것이 바로 편찬위원회와 편수회였으며, 그 결과물이 바로 『朝鮮史』이다. 『朝鮮史』는 편찬위원회와 편수회를 거치며 수집된 방대한 사료에 기초하여 편년에 따라 주요 사건과 그 사건을 전하는 사료 또는 사료의 소재들을 제시한 사료집 내지 색인집 성격의 책자로, 해방 후에도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朝鮮史』가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³⁾ 때문에 『朝鮮史』는 식민사학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론 - ‘일선동조론’, ‘타율성론’, ‘정체성론’ 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사론을 중심으로 『朝鮮史』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최근 관심이 증가한 만선사관이나 북방에 대한 연구와의 상관성 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⁴⁾

한편 『朝鮮史』 편찬은 ‘반도사 편찬’을 비롯 과거 총독부에서 주도한 연구·조사사업의 관계자들을 배제하며 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반도사 편찬’으로 대변되는 과거 연구·조사 사업들은 이마니시 류우(今西龍), 오다 쇼고(小田省吾) 등의 연구자들이 주도했던 반면 『朝鮮史』 편찬은 ‘반도사 편

3) 金容燮, 앞의 논문, 135쪽. 한편 1945년 이후에도 『朝鮮史』가 활발히 활용되었기 때문에 그 편찬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스에마쓰는 1960년대 초반의 대담에서 ‘『朝鮮史』는 일본이 조선통치에서 두고 온 하나의 선물인 것은 틀림없다고 자신했다(旗田巍 編, 1969, 『シンポジウム 日本と朝鮮』, 勁草書房, 79~81쪽).

4) 사료집이나 색인집을 작성할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료의 선별 기준이 무엇이었는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朝鮮史』 편찬 관계자들이 어떠한 성격의 책자를 만들고자 했는가를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주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때문에 『朝鮮史』가 사론으로 정리되어 온 식민지기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사관의 형성과 전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찬에서는 주변적이었던 쿠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가 사업을 총괄하고, 과거 사업과 무관한 나이토 코난(内藤湖南)이 간섭하는 가운데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 등과 같은 새로운 인물들이 중심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특히 『朝鮮史』 편찬 사업 개시 이후 한국에 부임해 와 사업의 실무를 총괄한 이나바와 ‘반도사 편찬’은 물론 총독부에서 주도한 조사 사업에 참여하며 수 차례의 답사와 연구를 통해 당시 한국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성장한 이마니시 사이에는 사업의 주도권이나 운영 방식을 두고 상당한 알력과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⁵⁾

그런데 이 둘의 사이에는 사업의 주도권이나 운영 방식을 둘러싼 갈등 이상의 차이, 바로 한국사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나바는 만선사학자로서 만선사의 체계화를 시도한 유일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인물이 『朝鮮史』 편찬에 깊숙이 간여하였다면 비록 『朝鮮史』가 사료집·색인집 성격의 책자이지만, 『朝鮮史』에 만선사의 흔적이 남지 않았을까? 즉 편찬위원회 구성 이후 새로운 인물로서 이나바의 기용은 『朝鮮史』와 만선사를 비롯한 북방에 대한 연구와의 상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특히 총 6편으로 구성된 『朝鮮史』의 경우 각 편별로 ‘主任’을 두었으며, 사업 후반으로 갈수록 각 편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매우 컸다. 그렇다면 이나바가 주임을 한 부분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을까?

이에 본고에서는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朝鮮史』 제 3편을 중심으로 여기에 드리워진 만선사의 흔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朝鮮史』 제 3편에 집중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필자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몇 편의 『朝鮮史』 관련 연구들에서도 『朝鮮史』 제 3편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으며,⁶⁾ 더 나아가 식민사학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朝鮮史』

5) 정상우, 2014, 『『朝鮮史』(朝鮮史編修會 간행) 편찬 사업 전후 일본인 연구자들의 갈등 양상과 새로운 연구자의 등장』, 『史學研究』 116.

6) 『朝鮮史』를 분석한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박찬홍, 2010, 『『朝鮮史』(朝鮮史編修會編)의 편찬체제와 성격 - 제 1편 제 1권(朝鮮史料)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99; 박찬홍, 2015, 『조

제 3편이 대상으로 하는 고려시대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찾아보기 어려워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고려시대 연구에 대해 알려진 사항은 많지 않다. 게다가 『朝鮮史』 제 3편을 총괄한 주임이 이나바였던 점은 특히 주목된다. 이나바는 『朝鮮史』 제 3편 편찬 당시 개인적으로 고려시대와 관련된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朝鮮史』 제 3편의 편찬으로 당시의 사료에 대한 검토가 가능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朝鮮史』는 사료집·색인집 성격의 책이라 편찬의 주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런데 7권으로 이루어진 『朝鮮史』 제 3편에 대해서는 이나바를 비롯한 편수회 관계자들이 각 권들에서 주목한 사건과 편찬의 주안점을 제시한 서평들이 비교적 충실히 남아 있어, 당시 편찬 관계자들의 시각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朝鮮史』 제 3편에서 활용한 사료들의 밀도와 성격 등과 함께 살펴본다면 『朝鮮史』가 비록 사료집·색인집 성격의 책이지만 적어도 제 3편의 주안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식민사학의 암흑시대와 다름없는 당시 일본인들이 만들어 낸 고려시대의 歷史像을 전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이마니시와 이나바의 시각을 간략히나마 살펴볼 것이다. 한국사를 바라보던 양자의 시각차이를 분명히 해야 『朝鮮史』 편찬을 둘러싼 이들의 입장이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朝鮮史』 제 3편에서 활용한 사료들의 밀도·성격 및 『朝鮮史』 제 3편 각 권들의 서평들과 당시 이나바가 발표한 연구 논문 등을 통해 『朝鮮史』 제 3편에 드리워진 만선사적 시각을 살펴보겠다.

선사』(조선사편수회 편) 제 2편(신라통일시대)의 편찬 방식과 성격 - 『삼국사기』 『신라본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45; 정상우, 2012, 『朝鮮史』(朝鮮史編修會 간행)의 편찬과 사건 선별 기준에 대하여, 『史學研究』 107. 박찬홍의 연구는 고대사에 해당하는 부분의 한국측 사료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며, 정상우의 논문은 조선시대 부분에 대한 사료선별 기준에 대한 추정이다. 한편 후자의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朝鮮史』 제 4·5·6편의 주안점과 만선사적 시각의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II. 한국사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의 교차

1922년 12월 『朝鮮史』 편찬이 공식화되고 이전 총독부에서 주도한 각종 조사·연구 사업과 무관했던 이나바가 사업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이전 ‘반도사 편찬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이마니시와 이나바 사이에는 마찰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⁷⁾ 그런데 이 둘은 사업의 운영에서만 아니라 한국사에 대한 시각과 접근 방식에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강점 직후 이마니시는 두 편의 글을 발표했다. 『檀君の說話に就いて』과 『日韓上代文化と其關係に就て』가 그것이다. 제목만 보아도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한 글에서 이마니시는 공통적으로 그 집필 이유를 당시 맹위를 떨치던 ‘日韓上代同域說’, ‘日韓同民族說’을 부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⁸⁾ 즉 강점 당시 이마니시는 ‘일선동조론’에 근거한 논의들에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동일한 先祖에서 나온 가까운 혈족’, ‘언어·풍속·신앙·습관 등도 본래 동일’한 ‘一家·一族’이며, 한일 양국은 ‘거주 지역을 같이해 국토의 구별이 없었다는 일선동조론’⁹⁾은 학문적인 기반이 불안정했음에도 한국 강점을 계기로 대거 유포되었다고 한다.¹⁰⁾ 그렇다고 이마니시가 한국과 일본의 밀접한 관계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日本과 新羅南韓地方 고분으로부터 발견한 上代 土器가 유사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日韓民族의 異同’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이는 양 민족의 ‘交通이나 通商’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¹¹⁾ 한일 유물의 유사성을 통해 양자 사이의 밀접한 ‘交通’, ‘通商’ 등은 인정하고 있었다.

한편 강점 이후 조선총독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인종과 유물·유적

7) 정상우, 2014, 앞의 논문.

8) 今西龍, 1910, 『檀君の說話に就いて』, 『歴史地理 朝鮮號』, 三省堂書店, 223~224쪽; 今西龍, 1910, 『日韓上代文化と其關係に就て』, 『朝鮮』 32, 朝鮮雜誌社, 26쪽.

9) 旗田巍 著, 이기동 譯, 1981, 『일본인의 한국관』, 일조각, 37~38쪽.

10) 미쯔이 다카시, 2004, 『일선동조론의 학문적 기반에 관한 시론 - 한국병합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3.

11) 今西龍, 1910, 『日韓上代文化と其關係に就て』, 『朝鮮』 32, 朝鮮雜誌社, 24~26쪽.

조사 사업을 벌여 나가며 한반도 남부지방과 그에 면하고 있던 일본 관서지방의 문화적·역사적 친연성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이마니시 역시 이러한 조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¹²⁾ 특히 1917년 임나일본부와 관련된 善山, 達成, 高靈, 星州, 金泉, 咸安, 昌寧 등지의 유물·유적을 조사한 이마니시는 이후 강연에서 답사 결과를 이야기하며 ‘낙동강 유역의 古物은 (일본의 유물과) 매우 유사하다…民族이 같기 때문에 같은 것인가, 다른 곳에서 영향을 받아 동일한 것인가, 甲에서 乙로 이동한 것인가, 乙에서 甲으로 이동한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지 않으면 안된다.’¹³⁾며 한국의 남부 지역과 일본의 민족적 동질성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 즉 강점 당시 한국과 일본의 민족적 일체성을 단호히 거부하던 이마니시가 강점 이후 한국의 남부와 일본의 인종적·문화적 친연성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속속 제시되는 한편 자신이 직접 한국의 남부를 조사하게 되면서 한일의 일체성에 대해 강점 당시와 같은 단호한 거부에서 한 발 빼는 모양새를 취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이마니시의 모호한 태도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과 일본인은 人種으로서 가장 가까운 것이라는 점은 言語·體質에 있어 의심할 것이 아니다. 人種學者는 Korea-Japanese group을 인정하며 吾人도 여기에 異議가 없다. 그러나 일본인과 조선인이 나뉜 것은 歷史時代以前 매우 오래된 것으로 겨우 그 흔적을 언어와 체질에 남긴 것에 지나지 않아 필경 人種의 問題이며 歷史의 問題는 아니다…세상의 日韓同域論者의 說과 같은 것은 채택할 수 없는 것이다. 양민족의 분리는 매우 유구한 상고에 있었다고 하겠다.¹⁴⁾ (밑줄은 인용자)

현재 韓種族이 조선 반도 남부에서 서부에 걸쳐 定住하였으며, 이른바 濊貊族은…조선 반도의 구석진 지역 일부 지방만을 차지하고 있던 데 불과하며, 조선 반도의 주요 주민은 韓種族이었던 것이다…(한민족과 일본민족

12) 정상우, 2008, 「1910~1915년 조선총독부 囑託의 학술조사사업」, 『역사와 현실』 68.

13) 今西龍, 1918, 「任那に就て」, 『朝鮮叢報』, 65쪽.

14) 今西龍, 1935, 「朝鮮史概說」, 『朝鮮史の棗』, 77~78쪽.

은 : 인용자) 種族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두 민족이 朝鮮-日本團(Korea-Japanese group)을 이룬다는 사실에는 東西의 학자들도 의견이 일치한다. 한·일 上代同域論은 따르기 어렵지만 두 민족이 同種이라는 점에는 아무도 異說을 주장하지 않는다...(언어, 용모, 체질, 上代의 토속 면에서 : 인용자) 이렇게까지 유사한 종족은 찾아보기 어렵다. 언어가 동일계라는 점이 국토의 인접이나 교통의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한민족이 일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접촉과 교통을 한 중국·만주 지역의 민족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부여·예맥·韓·일본은 민족상 커다란 一團을 이루지만, 부여·예맥은 다시 말해 通古斯族(통구스족)으로 이른바 만주족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이들과 韓·일본 사이에는 분명한 단절이 있으며...삼한의 종족은 지금의 조선 민족을 형성한 주체이다...삼한 민족과 당시 중국인이 倭라고 부른 일본 민족은 동일 종족에서 갈라진 종족에 지나지 않아, 옛부터...빈번하게 교통하고 왕래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또한 최근 일본·조선 양쪽의 고분 유물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韓種族이 거주한 남부 조선의 유물은 북부 조선의 유물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일본 열도에서 발견된 유물과 완전히 동일한 종류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¹⁵⁾ (밀줄은 인용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위의 인용문은 1919년 8월 4일부터 9일까지 이마니시가 교토제대에서 행한 ‘朝鮮史概說’이라는 강연과 비록 중단되었지만 조선총독부에서 시도한 최초의 역사 편찬 사업인 ‘반도사 편찬’¹⁶⁾ 당시 이마니시가 작성한 원고 중 일부이다. 이마니시는 여전히 ‘(日韓)同域論’과는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도 인종학자들의 ‘Korea-Japanese group’, ‘朝鮮-日本團’과 같은 표현을 빌려가며 한국인과 일본인이 종족으로서는 하나이며, 그 근거로 잦은 ‘교통’을 넘어서는 언어의 유사성을 들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인종 또는 종족의 문제로 동종의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

15)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조선반도사』 1편 원고』,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 선인, 136~160쪽.

16) 반도사 편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장신, 2009, 『조선총독부의 朝鮮半島史편찬사업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 정상우, 2011, 『조선총독부의 『朝鮮史』 편찬 사업』,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3~75쪽을 참고.

한국인과 일본인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역사 이전의 문제 - 바로 인종학의 문제이지 역사에서 다룰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이마니시의 입론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인종적, 문화적 유사성을 강조하는 일선동조론 류의 논의는 인종학 내지 언어학, 체질인류학 등에서 다룰 대상이지 역사학의 논의 대상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朝鮮-日本團’이라고 할 때 ‘조선’에 해당하는 것은 반도 남부의 ‘韓種族’이며, 이들은 일본과 하나로 묶이지만 부여·예맥 등 북방의 통구스족과는 구별되는 종족이기도 하다. 이는 일본의 고분 유물과는 동일하면서도 한국의 북부에서 발견된 유물과 현격히 차이가 나는 ‘韓種族’이 거주한 남부 조선의 유물들에 의해 증명된다.

이렇게 한국의 주류 인종을 ‘韓種族’으로 정의하고, 이들과 일본의 민족을 하나의 종족으로 아울러 ‘조선-일본단’이라 지칭하는 것은 이마니시가 가지고 있던 한국사에 대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사의 주체를 ‘반도의 남부에서 서부’의 ‘韓種族’으로 설정할 경우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는 한국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마니시가 작성한 ‘반도사 편찬’의 남겨진 원고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백제는 ‘그 王室 및 일부 귀족은 부여족의 후예이지만, 그 백성은 마한인’이며, 신라는 ‘진한을 통일하였고, 加羅, 任那는 변한족이므로, 이들은 조선 민족의 나라라며 백제와 신라의 역사는 한국사에 포함시키는 반면 고구려와 발해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경우에는 부여민족이 대륙을 근거지로 하여 조선 반도 북쪽에 나라를 세우면서 시작된 것으로, 후대에 이르러 고구려가 멸망하자 그 國人은 대부분 渤海로 들어갔던 반면, 신라로 들어가는 자는 적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조선 민족의 역사를 이루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물론 이마니시는 자신이 집필한 ‘반도사 편찬’의 원고에서는 고구려의 역사를 기술하였다. 하지만 그 이유는 한국사에 고구려사로 대변되는 북방의 역사가 포함되어서가 아니라 ‘고구려사를 조선 민족의 역사 속에서 다루지 않으면 복잡한 當代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⁷⁾

17) 『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 138쪽.

이처럼 한국사의 범위를 고구려사로 대변되는 북방의 역사를 제외한 채 만도 남부에 있었던 韓種族의 역사¹⁸⁾라고 보았던 이마니시의 생각은 단군을 부정할 때에도 『朝鮮史』 편찬 당시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마니시는 강점 당시 단군의 실재를 부정하는 짧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그는 평양 지역의 일개 神人인 ‘仙人王儉’에 고려 중반에 ‘檀君’이라는 尊號가 붙여지며 창시의 神人으로 여겨졌다고 보았다.¹⁹⁾ 이처럼 단군을 평양 지역의 神人으로 보는 시각은 1929년에 발표한 「檀君考」에서 확대·강화되어 나타났다.²⁰⁾ 여기서 이마니시는 ‘檀君傳說’은 역사적 형성물로, 이러한 전설이 만들어진 연혁을 추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단군을 전하는 전승은 여러 가지이지만 이러한 전승들은 모두 ‘관련 지방이 고구려의 舊地였던 곳이고, 그 관계도 통구스족인 扶餘種族에 관계하고 있으며, 현대 조선민족의 선조인 韓種族에는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또 ‘단군전설’과 같이 ‘始祖神인이 神獸交婚의生子’와 같은 전설은 아시아 북방대륙 민속에 공통되지만 ‘日韓族(Koreo-Japanese groups)’을 이루고 扶餘種·女眞 등 소위 통구스종과 대립하는 이들에게서는 나타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단군은 고구려-통구스종과 관계된 것으로, 신수교혼으로 위인이 탄생하는 것은 조선과 일본을 이루는 종족들과는 무관하며, ‘신화전설에 비추어 보아도 韓民族의 神人은 혹은 天에서 내려오고 淨地에서 나오는 등 일본의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²¹⁾ 이러한 북방민족의 ‘전설’인 단군이 한국사의 첫머리로 『朝鮮史』에 실릴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朝鮮史』 편찬이 한창 진행중이던 1930년 8월 22일 개최된 제 4회 편수회의에서 『朝鮮史』의 시작에 해당

18) 이러한 의미에서 도면회는 『조선반도사』를 ‘韓種族史’라고 규정하였다(도면회, 2014,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책과 한국사 구성 체계』, 『歷史學報』 222, 76~81쪽).

19) 今西龍, 1910, 「檀君의說話に就いて」, 『歷史地理 朝鮮號』, 三省堂書店, 224~230쪽.

20) 今西龍, 1970, 「檀君考」, 『朝鮮古史の研究』, 3쪽. 『朝鮮古史の研究』는 이마니시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각종 논문들을 모은 것이다. 「檀君考」는 그 중 하나로, 이마니시는 서문에서 ‘大正 9년(1920) 여름에 쓴 舊稿를 증보·수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수정된 원고가 발표된 것은 1929년이였다.

21) 今西龍, 위의 논문, 22~23쪽.

하는 제1편의 포괄 범위 - 보다 정확히는 ‘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민족, ‘조선사의 기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숙신족, 또 ‘渤海’는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에 대한 최남선의 질문에 이마니시는 『朝鮮史』 ‘제 1편은 민족을 중심으로 편찬하며, 고구려의 경우 ‘중심이 되는 민족의 이동에 관계가 있고, 이를 설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넣지만, ‘숙신은 연대문제상 역사학에서 취급하기 보다는 人類學·民族學의 연구범위’이며, ‘발해도 조선사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략한다고 답변하였다.²²⁾ 이러한 답변은 일본과 조선의 동일성을 종족 차원이라 말하면서 그에 관한 연구는 인종학이나 언어학의 분야로 넘겨 버린 후 한국사를 반도 남부의 韓種族의 역사라며 고구려로 대변되는 북방의 역사를 한국사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던 이전의 태도와 동일한 것이다.

실제로 이마니시가 주입으로서 최종 원고를 결정한 『朝鮮史』 제 1, 2편을 보면 한국사에 대한 그의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朝鮮史』 제 1편은 ‘新羅 始祖赫居世居西干 元年’으로 三國史記의 해당기사로 시작하며 한국사의 시작이 신라였음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단군에 대한 기사는 ‘甲子 新羅 始祖赫居世居西干 21年 高句麗 始祖東明聖王 元年’ 항목, ‘是歲, 新羅, 金城⁷築⁷. 高句麗, 始祖高朱蒙立⁷’라는 설명 아래 관계 기사로 실려 있다.²³⁾ 즉 단군 사료를 고구려의 건국과 관련된 동명왕 기사 다음 부분에 제시함으로써 단군이 고구려 관련 사항으로 읽히도록 사료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新羅統一時代’를 다루는 『朝鮮史』 제 2편에 ‘渤海’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사를 반도 남부의 韓種族 중심의 역사로 바라보았던 이마니시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²⁴⁾

22) 朝鮮史編修會 編, 編輯部 譯, 1985,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시인사, 47~48쪽.

23) 朝鮮史編修會 編, 1932, 『朝鮮史』 第1編 第1卷, 8~12쪽. 『朝鮮史』 第1編은 정사라고 할 수 있는 삼국사기, 그 가운데에서도 신라의 기사를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이 편찬 범례였다. 단군 관련 기사는 ‘是歲, 新羅, 金城⁷築⁷. 高句麗, 始祖高朱蒙立⁷’라는 강문에 대한 기사로서 1) 三國史記 신라본기와 고구려 본기, 2) 三國遺事 王曆의 혁거세 관련 기사와 고구려 동명왕 기사를 제시한 이후 三國遺事의 단군 기사를 제시하는 형태이다.

24) 1932년 5월 李西龍의 사후, 그의 주요 논문들과 未定稿들은 주제별로 묶여 출간되었다. 『新

한편 『朝鮮史』 편찬을 계기로 한국에 부임하게 된 이나바는 연구의 출발점부터 이마니시와는 달랐다. 이마니시는 한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와 역사 연구를 거치며 한국사 연구자로 입지를 다졌다면 이나바는 만철 산하 만선역사지리조사부에서 만주의 역사·지리를 조사하며 만주사 연구자로서 성장했고, 한국사 연구는 『朝鮮史』 편찬을 위해 조선에 부임할 즈음부터 개시했다고 한다. 특히 한국사 연구 초기작인 『滿鮮不可分の史的考察』을 통해 이나바는 민족적·정치적·경제적으로 만주와 조선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한편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의 한국사 연구를 ‘朝鮮史를 日本史的으로 관찰하는 편견’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支那 및 滿蒙方面의 文化史를 參酌’하고 ‘大陸方面의 記錄에 比較’하여 ‘朝鮮史의 東洋史化’²⁵⁾를 주장했다.²⁶⁾ 즉 이나바는 당시까지 일본인들의 한국사 연구를 ‘일본사의 범주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만선불가분이라는 구상 하에 한국사를 ‘동양사의 일부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국사를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또 이나바는 『滿鮮不可分の史的考察』 이래로 한국은 민족적으로 만주와 불가분의 관계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민족은 모두 ‘만주 방면의 이주민’임을 확신했으며, 이후에도 조선의 주류민족은 만주계임을 주장했다.²⁷⁾ 이러한 주장 역시 이마니시와 같은 자신에 앞서 한국사를 연구했던 이들과는 상반되는 태도이다. 그런데 한국의 민족과 관련하여 이나바는 『朝鮮史』 편찬 진행 초기이자 자신의 한국사 연구 초기라고도 할 수 있는 1925년에 흥미로운 저작 하나를 남겼다. 『(朝鮮)民族史』가 그것이다. 이는 3·1 운동 이후 식민사학의 보급을 목적으로 조직된 朝鮮史學會에서 발행한 강의록, 바로 ‘朝鮮史講座 - 分類史’ 가운데 한 편으로,²⁸⁾ (조선)민족의 성립과 발달을 환

羅史研究』(1933), 『百濟史研究』(1934), 『高麗史研究』(1944)가 그것이다. 이는 식민지기 대표적인 한국고대사 연구자로서 그가 진행한 연구는 신라, 백제를 중심으로 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5) 稻葉岩吉, 1925, 序, 『朝鮮文化史研究』, 雄山閣, 1~2쪽.

26) 稻葉의 한국사 연구 초기, 한국사에 대한 인식은 정상우, 2013, 앞의 논문, 328~332쪽.

27) 한국의 민족 구성에 대한 稻葉의 논의에 대해서는 정상우, 2010, 앞의 논문, 16~18쪽.

경으로부터 打算해 그 시대를 고찰하고, 이 민족과 교섭한 外族의 문화를 고구하며, 문화를 수용한 민족(조선민족 : 인용자의 능력을 관찰하여 ‘문화생활의 내용을 평론’²⁹⁾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었다. 여기서 이나바는 민족 형성에서 중요한 것은 ‘토지’, 즉 지리적 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결정적이라며 논의를 전개한다.³⁰⁾ 이후 그는 처음 기획대로 조선민족을 둘러싼 환경들, 반도의 민족에게 문화적 영향을 준 漢民族 및 교섭이 있었던 일본 등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는 반도에 정착한 이들은 몽고 동방 부근과 만주 방면에서 근거한 東胡民族이 장백산을 타고 내려 온 것이라며 한국의 민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민족의 주체를 이룬 것은 韓種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족이 東胡系에 속하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러나 韓種은 금일의 조선민족 전체인 것은 아니다. 東胡系의 다른 분파나 그것과 전혀 계통을 달리 하는 漢民族도 들어와, 半島의 鑄型에서 陶冶된 것이 지금의 조선민족과 민족성이다. 반도는 어디까지나 반도이며 대륙이 영향은 緊切하다. 설령 유사 이전부터 韓種이 그 땅에 定住하였다고 해도…결국 環境에 交渉을 가지고 있다…반도와 반도 주위의 민족관계를 대략 서술하자면…반도는 滿蒙의 延長이라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 滿蒙방면에 근거를 가진 민족이 어떤 기회를 타고 남쪽으로 옮겨 반도를 발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鮮滿不可分の 표어는 여기서 역설해도 좋지만 世間に 異論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것들에 따르면…반도의 南半에는 만드시 그렇지 않아 만주 방면과는 계통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이유가 있지만 서구학자가 서술했듯이 ‘토지는 민족이다’라는 해석에서 생각해보면 금일 반도의 남북에 차이가 있다 해도 역사적 대세를 부정할 수는 없다.³¹⁾ (밑줄은 인용자)

28) 朝鮮史學會의 조직과 식민사학 전개에 있어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준영, 2016, 「식민사관의 차질 - 조선사학회와 1920년대 식민사학의 제도화」, 『韓國史學史學報』 34.

29) 朝鮮史學會, 1923, 『朝鮮史講座 - 要項號』, 8쪽.

30) 稻葉岩吉, 1925, 『朝鮮民族史』, 『朝鮮史講座 - 分類史』, 1쪽.

31) 稻葉岩吉, 1925, 위의 논문, 8~30쪽.

여기서 잘 드러나듯이 이나바는 ‘조선민족은 북방의 동호계에 속하는 韓種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종족들이 반도라는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하며 만선불가분을 다시 역설하고 있다. 즉 한국의 민족은 기본적으로 북방계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민족과 민족성을 형성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바로 환경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 자신이 백 번 양보해 반도의 남북에 민족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³²⁾ - 한국의 민족과 민족성의 형성, 민족사의 전개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반도’라는, ‘대륙의 영향이 긴절’한 ‘토지’임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이나바는 자신의 견해에 대한 ‘異論’ 역시 의식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와 위의 인용문을 통해 볼 때 ‘異論’은 한국사를 ‘일본사적으로 관찰하는 것이자 반도 남부에 있던 이들이 만주와 계통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만선불가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마니시로 대변되는, 한국사를 만주와의 관련 속에서가 아니라 일본과 동종인 반도 남부의 韓種을 중심으로 구상하는 견해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나바가 당면했던 ‘異論’은 이것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민족이 이 領土를 조선민족의 영토로 함에 이른 것은…新羅가 朝鮮을 統一함에 至한 頃부터 …故로 今日的 朝鮮人의 民族心理의 裸에는 新羅民族을 本位로 하는 思想은 殆히 傳統的임을 知得치 안이하면 不可하다…大體로 말하면 慶州의 6村에서 起하여 朝鮮半島를 統一하여 거기에 民族의 領土가 構成되었다고 解釋한다. 그러나…고구려민족 즉 만주전체를 영토로 하던 고구려의 국토도 우리 조선민족의 영토라고 해석하는 자도 있다…만약 朝鮮民族을 廣義로 생각하여 신라통일 이전의 삼국시대를 기초로 할 것 같으면 조선의 영토를 만주까지 及하기 可能하리라³³⁾…高句麗와

32) 稻葉岩吉은 이후에도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고구려와 백제는 만주민족이라며 한국의 민족의 2/3 이상은 만주민족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생각을 그의 말년인 1937년에 발표한 『朝鮮の歴史的對滿感情及³³⁾智識』에서도 유지하고 있었다.

33) 稻葉君山, 1927, 『朝鮮의 領土問題, 民族問題 及 鮮滿文化關係에 就하여』(1), 『朝鮮』 121, 4~5쪽.

百濟와 新羅는 其昔은 異國 이얏스나 共히 同一民族이오, 檀君의 子孫이라고 生覺하는 同時에 滿洲도 我領土의 一이얏다는 大한 思考를 持함이 必要...新羅를 基礎로 하는 朝鮮史家의 見解로는 안된다...**要컨대 朝鮮人은 其 傳統的으로 思하는 新羅本位의 歷史觀을 放棄하고...日本人의 朝鮮史研究者에 在하야는 放漫的으로 日鮮關係에만 沒頭치말고 滿洲方面과 의 深切한 史實을 攷察할 必要를 感하며...**³⁴⁾ (강조는 원문 그대로, 밑줄은 인용자)

위의 인용문은 「(朝鮮)民族史」를 발표한 지 2년 후인 1927년 8월에 있었던 이나바의 강연 중 일부이다. 여기서 이나바는 한국인의 영토관념을 거론하며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신라를 중심으로 역사를 사고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만선불가분에 반하는 ‘異論’이기도 한 것이다. 이나바는 ‘今日の 朝鮮民族 中에 다수의 滿洲民族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歷史상 爭치 못할 事實’로, 한국인들은 ‘滿洲에서 일어난 民族도 우리(조선민족 : 필자)와 同源同民이라는 해석이 가장 바른 朝鮮歷史의 해석’임을 알아야 한다며,³⁵⁾ 신라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관, 한일관계만을 중시하는 연구 자세를 비판하면서 고구려를 통해 영토에 있어 만선불가분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역사 해석에 있어 고구려에 대한 관심은 이미 「(朝鮮)民族史」에서도 나타난다. 이나바는 고구려를, 滿鮮에 걸쳐 ‘양방면을 一丸으로’ 했기 때문에 ‘前古未曾有의 強勢와 文化를 발달’시킨 국가로 평가하며, 삼국의 문화발달은 - 삼국사기와는 반대로 -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으로, 고구려가 신라에 비해 4~5세기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설명되어야 한국의 ‘민족구성 경과가 판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³⁶⁾

이처럼 만선불가분에 입각해 민족·정치·경제 등 한국사의 모든 사항을

34) 稻葉君山, 1927, 「朝鮮의 領土問題, 民族問題 及 鮮滿文化關係에 就하야」(2), 『朝鮮』 122, 15쪽.

35) 稻葉君山, 1927, 「朝鮮의 領土問題, 民族問題 及 鮮滿文化關係에 就하야」(1), 『朝鮮』 121, 9~11쪽.

36) 稻葉若吉, 1925, 앞의 논문, 37~38쪽, 97~98쪽. 이러한 이유로 「(朝鮮)民族史」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로 서술되었다.

고려함에 있어 ‘토지’, 바로 대륙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반도임을 가장 중요시했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고구려사를 우선시했던 이나바가 『朝鮮史』 편찬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기왕의 조선총독부의 각종 조사 사업이나 ‘빈도사 편찬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바로 단군을 비롯한 북방의 역사에 대한 사항이다. 『朝鮮史』 편찬이 공식화된 직후 개최된 제 1회 조선사편찬위원회의(1923. 1. 8~10.)에 위원으로서 참석한 鄭萬朝와 李能和는 단군과 발해의 수록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답변한 이나바와 카야하라 마사조우(栢原昌三)³⁷⁾는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 특히 이나바는 발해는 물론 만주지역에 있던 鐵利까지도 포함할 것이라며 『朝鮮史』의 수록 범위를 밝혔다.³⁸⁾ 이러한 답변은 한국사를 만주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역설하던 이나바의 사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때의 회의에서 단군이나 발해를 『朝鮮史』에 수록하는가의 여부는 『朝鮮史』 제 1, 2편의 주임인 이마니시가 회의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못했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당 부분의 『朝鮮史』는 결국 이마니시의 생각대로 편찬되었다. 그렇지만 만약 이마니시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朝鮮史』 제 1, 2편의 주임이 이나바였다면 『朝鮮史』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편찬되었을지도 모른다. 한편 『朝鮮史』 제 1, 2편의 편찬이 거의 완료되었던 1932년 5월 이마니시는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였으며, 그해 12월부터 1935년 3월에 걸쳐 이나바가 주임으로서 원고를 결정한 『朝鮮史』 제 3편 - 고려시대 - 이 출간되었다.

37) 栢原昌三은 1907년 도쿄제대 사학과 選科를 수료한 직후부터 사료편찬과에서 史料編纂官 補로 근무하다가 편찬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조선에 부임했다. 즉 카야하라 역시 이나바와 마찬가지로 『朝鮮史』 편찬 사업 개시 전까지 조선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다. 그는 비록 1924년에 사망하여 오랫동안 재직하지는 못했지만 편찬위원회 초기 이나바와 더불어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였으며, 특히 초기 사료 수집은 그에게 힘입은 바가 컸다.

38) 제1회 조선사편찬위원회 회의록(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ju_025_0020_0020_0020).

Ⅲ. 『朝鮮史』 제 3편과 만선사의 상관성

총 7권으로 구성된 『朝鮮史』 제 3편은 1932년 12월에 1, 2권 발간을 시작으로 1935년 3월 6, 7권의 출판으로 완료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마니시는 사망했기 때문에 제 3편의 편찬과 발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지만 원래 제 3편의 주임 역시 이마니시였다는 점이다. 1922년에 공식화된 『朝鮮史』 편찬 사업은 1927을 전후하여 편별 주임과 보조를 결정하고, 편수 범례를 논의하는 등 사료 채방을 넘어 본격적인 편수준비에 돌입하였다. 초기 결정에 따르면 총 6편으로 구성된 『朝鮮史』의 1, 2, 3편 - 신라통일이전부터 고려시대까지는 이마니시가 주임이었다.³⁹⁾ 하지만 1928년 7월에 개최된 顧問·委員 會合에서 1, 2, 3편부를 한 사람이 담당하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제 3편은 별도의 담당자를 두어 '사무의 진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되었다.⁴⁰⁾ 이러한 보고가 있는 지 1년 후인 1929년 12월의 제 3회 편수회 위원회의에서 제 3편은 이나바 담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되는 것을 보면⁴¹⁾ 1928년 7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3편의 주임은 이나바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朝鮮史』 편찬에 있어 각 편당 1인씩 두었던 주임은 해당 편에 실리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위치에 있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주임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편찬 초기 『朝鮮史』 최종원고를 결정하는 것은 이나바, 이마니시, 나카무라와 유일한 조선인 수사관인 洪晝 4인으로 구성된 審議部의 소관이었다.⁴²⁾ 하지만 1932년 5월 이후 이마니시의

39) 朝鮮史編修會, 『大正15年 7月 3日 朝鮮史編修會 編修事務分擔協議會 議事錄』, 『大正15年以降 編修打合會書類綴』. 한편 총 6편으로 구성된 『朝鮮史』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第1編 新羅統一以前, 第2編 新羅統一時代, 第3編 高麗時代, 第4編 朝鮮時代前期, 第5編 朝鮮時代中期, 第6編 朝鮮時代後期.

40) 朝鮮史編修會, 『顧問·委員會合議事錄』, 『(朝鮮史編修會)委員會議事錄』.

41) 朝鮮史編修會, 『朝鮮史編修會 第3回 委員會 會議錄』, 『(朝鮮史編修會)委員會議事錄』. 한편 1930년 7월 31일자로 朝鮮史編修會에서 발간한 『朝鮮史編修會要覽』을 보면 제 1, 2편의 주임은 '今西龍'으로, 제 3편의 주임은 '稻葉岩吉'로 명기되어 있다.

42) 정상우, 2014, 앞의 논문, 150~173쪽. 이에 따르면 편수회에 대한 今西의 불만이 폭발하

심의부 간여는 불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이마니시를 대신하여 심의부원이 되었다는 인사발령은 없었다. 즉 『朝鮮史』 제 3편 이하는 이마니시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은 채 원고 작성에서 최종본의 결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더군다나 『朝鮮史』 편찬이 지연됨에 따라 더욱 빠르게 편찬을 진행하기 위해 최종 원고의 결정 방식은 보다 간소한 형식, 바로 각 편의 주임들이 담당하는 형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편찬 초기 그 편찬방식이나 범례를 제외하면 『朝鮮史』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통일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편수회 내부 사정을 알려주는 사료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당시 『朝鮮史』 편찬자들이 한국사 혹은 자신이 편찬을 담당할 시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충분치 않은데다가, 현격히 떨어지는 한문 해독 능력으로 인하여 계획된 기한 내에 『朝鮮史』를 완성하기에 급급했다.⁴³⁾ 이와 관련하여 스에마쓰는 ‘『朝鮮史』에 대한 評價는, 구체적으로는, 각 편 각각에 관해서 해야 합니다’라고 회고하였는데,⁴⁴⁾ 이는 『朝鮮史』 편찬이 전체적으로 통일된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편찬되지 못했다는 것, 즉 『朝鮮史』의 각 편의 성격은 주임에 의해 좌우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朝鮮史』 제 3편의 경우 이나바가 주임을 맡게 되면서 본격적인 편찬이 개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제 3편의 주임 교체의 필요가 이야기된 1928년 7월 회의에서 제 3편의 편찬 상황은 ‘未着手’라고 보고되었지만, 이나바가 자신이 제 3편의 편수를 맡았다고 밝힌 1929년 12월 제 3회 편수회 위원회의에서는 ‘본년부터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⁴⁵⁾ 즉 『朝鮮史』

자 審議部에 소속되지 않았던 그를 審議部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무마시켰다고 한다. 한편 제 3편부의 주임 교체의 원인으로 今西 한 사람이 1, 2, 3편부를 모두 담당하는 것에 따른 업무 부담과 더불어 黑板, 稻葉으로 대변되는 편수회 주축 세력과 今西의 갈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 3편부의 주임을 따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회의는 今西가 편수회에 사표를 제출한 이후 참석하여 편수회의 작업 방식과 위원의 위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한 회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사정을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43) 정상우, 2012, 앞의 논문, 296~309쪽.

44) 旗田巍 編, 1969, 앞의 책, 80쪽.

제 3편은 1929년부터 편찬이 시작되어 6년여 만에 모든 권의 출간이 완료된 것이다.

사실 19세기 말 이래로 일본의 역사학계에서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는 일본사를 해명하는데 필요한 부분, 특히 한국의 고대사나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항에 집중되어 있었을 뿐, 그와 상관이 없던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⁴⁶⁾ 그런데 이나바는 『(朝鮮)民族史』에서 古代에는 만몽 민족들의 문화가 저급했기 때문에 그들이 반도에 미친 영향은 적었지만 오히려 발해가 멸망한 이후로 그 영향력이 커진다고 보았다. 바로 東蒙古 일대에 강대한 契丹 = 遼가 흥기했으며, 그 뒤를 이어 契丹의 유산을 상속하며 北滿洲의 女眞이 일어남에 따라 ‘만몽의 문화는 현격하게 發揚하여 반도에 영향을 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뒤이어 일어난 ‘蒙古人의 반도에 대한 태도보다 심각하고 중대한 결과를 (반도에) 가져온 것은 이전에 없었다고 할 정도로 10세기 이후 14세기까지 만주와 몽고의 영향력이 반도에 강하게 미쳤다고 보았다.⁴⁷⁾ 이는 비록 본격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이나바가 반도에 대한 만몽의 영향력이란 측면에서 거란, 여진, 몽고 등 만몽지역의 민족이 끊임없이 등장했던 고려시대를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국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면서 만선불가분이라는 시각에 입각해 고려시대에 접근했던 이나바는 이마니시를 대신하여 『朝鮮史』 제 3편의 주임을 맡게 되면서 - 더군다나 이마니시의 죽음으로 그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은 채 - 원고의 작성에서 최종본의 결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朝鮮史』 제 3편을 완성했던 것이다.

45) 朝鮮史編修會, 「顧問·委員會會議事錄」·「朝鮮史編修會 第3回 委員會 會議錄」, 『(朝鮮史編修會)委員會會議事錄』.

46) 정상우, 2011, 앞의 논문, 90~95쪽. 이에 따르면 도쿄제대 史學會에서 발간한, 당시 일본 最古의 학술지인 『史學雜誌』 창간호(1890년 발간)에서 『朝鮮史』 편찬이 공식화된 1922년 말까지 발간본에 실린 한국사 관련 논문 중(108편) 가운데 64%가 고대사 관련이며, 고려시대에 대한 것은 3편, 조선시대에 관련은 19편에 그치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임진왜란을 축으로 한 한일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47) 稻葉岩吉, 1925, 앞의 논문, 90~93쪽.

그렇다면 이상에서 살펴본 이나바의 한국사관은 『朝鮮史』 제 3편에 어떠한 흔적을 남겼을까? 『朝鮮史』 제 3편에서 활용한 전거자료의 밀도와 당시 편찬 관계자들이 남긴 『朝鮮史』 제 3편의 서평⁴⁸⁾을 통해 편찬자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나바는 『朝鮮史』 제 3편만이 아니라 제 5편 - 조선시대중기 - 의 주임이기도 했으며, 그 외 사료채방을 비롯 편수회의 모든 사무에 간여하였다. 이렇게 업무가 많았을 이나바가 『朝鮮史』 편찬이 한창 중인 1932년 6월 『光海君時代の滿鮮關係』라는 논문으로 京都帝大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펼쳤던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평소 자신이 품었던 만선사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고 이야기 되는 이 논문⁴⁹⁾은 - 내용은 차치하고서 - 적어도 조선·명·청·일본에 걸쳐진 사료들을 두루 활용한 점에서는 높게 평가된다.⁵⁰⁾ 그런데 이나바가 격무 중에도 이러한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朝鮮史』 편찬 사업 덕분이었다. 그는 『朝鮮史』 편찬을 위한 사료 수집 중 太白山史庫에 보관되어 있던 光海君日記 中草本을 획득했으며, 그 해독을 조선인 修史官인 洪憲가 도와주어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⁵¹⁾ 더군다나 『朝鮮史』 제 3편과 마찬가지로 이나바가 주임을 맡은 제 5편을 보면 光海君代를 다루는 1권(광해군 즉위년에서 인조 3년(1608~1625))이 다른 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료를 활용했다고 한다. 특히 『朝鮮史』 제 5편의 1권의 경우 광해군일기가 기본 자료로서 집중적으로 활용되며, 그의 박사학위 취득 시점과 비슷한 시점인 1933년 3월에 발간되었다. 즉 이나바의 관심사, 바로 만선사적

48) 『朝鮮史』는 모든 책이 동시에 출판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부분부터 한 권씩 간행되었는데, 이 때 편찬 관계자들이 『靑丘學叢』의 지면을 빌려 각 권의 해당 시기에 일어난 주요 사건과 평가, 중요시해야 하는 사료 등을 전하는 서평을 남기기도 했다. 이는 당시 편찬 관계자들의 『朝鮮史』 편찬에서 역점을 둔 부분이 무엇이었는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인데, 제 3편의 경우 일곱 번째 권을 제외한 1~6권의 서평이 남아 있다.

49) 한명기, 1998, 『폭군인가 현군인가 - 광해군 다시읽기』, 『역사비평』 44, 156~159쪽.

50) 허태구, 2017,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의 丁卯·丙子胡亂 관련 중 연구 검토』, 『朝鮮時代史學報』 81, 12쪽.

51) 中村榮孝, 1969, 『朝鮮史の編修と朝鮮史料の蒐集 -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の事業』, 『日鮮關係史の研究』, 675쪽.

관점이 『朝鮮史』 편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나바가 『朝鮮史』 제 3권을 한창 편찬할 당시에 고려시대와 관련된 연구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의 시각과 연구 과정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가 주임을 맡았던 『朝鮮史』 제 3권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朝鮮史』 제 3권을 각 권별로 사용한 사료와 그 수를 확인하고, 남아있는 『朝鮮史』의 서평들과 이나바의 연구를 통해 편찬의 주안점이 어디에 놓였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고려시대를 다루며 7권으로 구성된 『朝鮮史』 제 3권의 각 권별 대상 시기, 사용한 사료와 그 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朝鮮史』 제3편(高麗 太祖19年~恭讓王4年) 각권별 이용 사료와 종수

권	시기	전거사료	종수
1 (530쪽)	高麗 太祖19年 (936) ~ 高麗 宣宗元年 (1083)	한국 :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通鑑, 樸翁稗說, 補閑集, 益齋亂藁, 新高麗史, 三峯集, 修山集, 野史之流, 東史綱目, 釋苑詞林, 三國遺事, 東文選, 三國史記, 東城全集. 廣照寺眞澈大師寶月乘空之塔碑, 毘盧庵眞空大師普法之塔碑, 菩提寺大鏡大師玄機之塔碑, 地藏禪院郎圓大師悟眞之塔碑, 興法寺眞空大師塔碑, 淨土寺法鏡大師慈燈之塔碑, 五龍寺法鏡大師普照慧光之塔碑, 興寧寺澄曉大師寶印之塔碑, 大安寺廣慈大師碑, 無爲岬寺先覺大師遍光塔碑, 玉龍寺洞眞大師寶雲之塔碑, 太子寺朗空大師白月栖雲之塔碑, 鳳巖寺靜眞大師圓悟之塔碑, 高達寺元宗大師慧眞之塔碑, 皇龍寺幢竿記西院鐘記, 斷俗寺眞定大師塔碑, 普願寺法印國師寶乘之塔碑, 玄化寺碑, 開城柳邦憲墓誌, 淨土寺弘法國師實相塔碑, 興國寺石塔碑, 浮石寺圓融國師碑, 靈通寺大覺國師碑, 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碑, 偃鳳寺大覺國師碑, 金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 興王寺大覺國師墓誌.	42 (27)
		중국 : 舊五代史, 五代史, 冊府元龜, 遼史, 資治通鑑, 宋史, 海東金石苑, 文獻通考, 宋高僧傳, 佛祖歷代通載, 佛祖統紀, 續資治通鑑, 開元釋教錄, 契丹國志, 遼東行部志, 宣和奉使高麗圖經.	16
		일본 : 日本紀略, 百練抄, 朝野群載, 本朝續文粹, 古今著聞集, 續古事談, 江談抄, 和漢合運, 權記, 承天寺朝鮮鏡記, 鎮西要略.	11
2	高麗 宣宗2年	한국 :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通鑑, 事蹟略錄, 東文	41

권	시기	전거사료	종수
(600쪽)	(1084) ~ 高麗 毅宗元年 (1146)	選, 益齋亂藁, 三峯集, 新高麗史, 東國通鑑, 世祖實錄(朝鮮王朝實錄), 大覺國師文集, 高麗圖經, 補閑集, 權適墓誌, 新增東國輿地勝覽, 慧因寺志, 益齋亂藁, 修山集, 李相國集, 樸翁稗說, 破閑集, 三國史記, 釋苑詞林, 東師列傳, 新編諸宗教藏總錄. 通度寺國長生石標, 通度寺舍利袈裟, 靈通寺大覺國師碑, 般若寺元景王師碑, 偃鳳寺大覺國師碑, 密陽武安里國長生石標, 金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 興王寺圓明國師墓誌, 興王寺大覺國師墓誌, 文殊院重修碑, 朴景仁墓誌, 雲門寺圓應國師碑, 崔思全墓誌, 清平息庵刻字, 清平仙洞刻字, 高麗文公墓誌, 李坦之墓誌.	(17)
		중국 : 續資治通鑑, 資治通鑑, 大宋僧史略, 宋史, 遼史, 契丹國志, 金史, 東坡全集, 金史詳校, 直齋書錄, 中州集, 東京夢華錄, 石林燕語, 十駕齋養新錄, 重廣會史, 說文正字, 文獻通考, 佛祖歷代通載, 佛祖統紀, 遼道宗仁聖孝文皇帝哀冊, 通典印文, 說文正字印文, 重廣會史印文, 姓解印文.	24
		일본 : 東寺年代記.	1
3 (581쪽)	高麗 毅宗2年 (1147) ~ 高麗 高宗10年 (1222)	한국 :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通鑑, 高麗圖經, 補閑集, 樸翁稗說, 益齋亂藁, 新高麗史, 三峯集, 順菴集, 新增東國輿地勝覽, 治平要覽, 東文選, 梅湖遺稿, 諛聞瑣錄, 李相國集. 金誠墓誌, 元沆墓誌, 李坦之墓誌, 洪圓寺教雄墓誌, 李仁實廟誌, 尹誦墓誌, 朴脩墓誌, 李仁榮墓誌, 文公元墓誌, 朴得齡墓誌, 智勒寺廣智大禪師墓誌, 崔誠墓誌, 林景軾墓誌, 崔允仁墓誌, 崔允儀墓誌, 金永錫墓誌, 寧國寺圓覺國師碑, 李應璋墓誌, 盧卓儒墓誌, 瑞峯寺玄悟國師碑, 張忠義墓誌, 李文著墓誌, 咸有一墓誌, 白任至墓誌, 靈通寺住持智侁墓誌, 柳公權墓誌, 金純墓誌, 金鳳毛墓誌, 張允文墓誌, 朴仁碩墓誌, 李侃墓誌, 任益淳墓誌, 崔忠獻墓誌, 柳光植墓誌, 寶鏡寺圓眞國師碑.	51 (35)
		중국 : 金史, 中州集, 宋史, 元朝秘史續集, 皇元聖武親征錄, 元高麗紀事, 元史, 元史新編, 二十二史, 國朝文類, 吉林省龍偵村城子山土古青銅板.	11
		일본 : 吾妻鏡, 古今著聞集, 成吉思汗實錄.	3
4 (550쪽)	高麗 高宗11年 (1223) ~ 高麗	한국 :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通鑑, 東國李相國集, 新增東國輿地勝覽, 益齋亂藁, 松廣寺眞覺國師圓, 東國兵鑑, 止浦集, 東文選, 樸翁稗說	12 (2)

권	시기	전거사료	종수
	忠烈王5年 (1278)	任益倅墓誌, 崔甫淳墓誌	
		중국 : 元史, 元史新編, 元朝秘史續集, 元高麗紀事, 永樂大典, 二十二史, 遼東志, 國朝文類, 口北三廳志.	9
		일본 : 吾妻鏡, 吉川本吾妻鏡, 皇帝紀抄, 百練抄, 明月記, 成吉思汗實錄, 元享釋書, 皇王編年記, 北條九代記, 吉續記文, 伏敵編, 五代帝王物語, 一代要記, 歷代皇記, 善隣國寶記, 帝王編年記, 關東評定傳關東評定衆傳, 螢蠅抄, 南都東大寺尊勝院藏本蒙古國牒狀·高麗國書, 南都東大寺尊勝院藏本高麗國信使書·蒙古國牒狀奧書, 靖方溯源引用書目錄解題(八幡愚童記), 八幡愚童記, 日蓮上人註畫讚.	23
5 (543쪽)	高麗 忠烈王6年 (1279) ~ 高麗 忠惠王元年(1330)	한국 :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通鑑, 天下同文前甲集卷七高麗國大藏移安記, 益齋亂藁, 益齋先生年譜, 牧隱文藁, 拙藁千百, 野史之流, 慧因寺志, 稼亭先生文集, 新增東國輿地勝覽, 益齋集附錄恭愍王時文簡公本傳, 樸翁稗說, 通度寺舍利袈裟事蹟略錄. 麟角寺普覺國尊靜照塔碑, 桐華寺弘眞國尊應塔碑, 洪奎配金氏墓誌, 閔頤墓誌, 元忠墓誌	20 (5)
		중국 : 元史, 新元史, 元史新編, 元高麗紀事, 二十二史, 口北三廳志, 聖朝通制, 國朝文類, 皇元故敦武校尉管軍上百戶張成墓碑銘.	9
		일본 : 伏敵編, 一代要記, 歷代皇記, 北條九代記, 皇代略記, 關東評定傳關東評定衆傳.	6
6 (479쪽)	高麗 忠惠王2年 (1331) ~ 高麗 恭愍王24年(廢 王元年, 1374)	한국 :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通鑑, 稼亭先生文集, 拙藁千百, 益齋亂藁, 東文選, 新增東國輿地勝覽, 牧隱文藁, 金石總覽, 中京誌, 益齋先生年譜, 益齋先生行狀, 治平要覽, 樸翁稗說, 新高麗史, 星湖僊說, 備齊叢話, 槿域書徵, 三國遺事, 太祖實錄(朝鮮王朝實錄), 槿域書畫徵, 列聖御製肅宗題恭愍王天山大獵圖.	23 (0)
		중국 : 元史, 新元史, 皇明實錄, 宋學士全集, 高皇帝御製文集.	5
		일본 : 善隣國寶記, 對島編年略	2
7 (483쪽)	高麗 廢王(禡王)2年(1375) ~ 高麗 恭讓王4年(139	한국 :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通鑑, 治平要覽, 星湖僊說, 圃隱先生集, 太祖實錄(朝鮮王朝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牧隱文藁, 牧隱詩藁, 牧隱先生文集, 陶隱先生詩集, 龍飛御天歌, 海東佛祖原流, 備齊叢話, 海東金石總目, 遁村雜詠, 新高麗史, 陽村集, 昆命集, 柳巷集.	21 (1)

권	시기	전거사료	종수
		靑龍寺普覺國師碑銘.	
	2)	중국 : 新元史, 皇明實錄, 高皇帝御製文集, 禪林寶訓, 遼東志.	5
		일본 : 伏敵編, 本朝高僧傳(周佐), 異稱日本傳, 朝鮮通交大紀.	4

※ 이 표는 정상우, 2011, 앞의 논문, 193~194쪽에 제시된 것을 근거로 수정·보완한 것으로, 이탤릭으로 표시된 것은 금석문 자료이며, ‘종수’란의 ()안에 제시된 수는 각 권별로 활용된 금석문의 숫자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450여 년간 지속된 고려왕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10여년의 역사를 1권과 2권 두 권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이 시기는 만선사적 관점에서라면 주목되는 遼·金과의 대외관계와 전쟁이 빈번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는 당시를 전하는 사료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朝鮮史』의 편찬 관계자들도 이를 의식했는지 이에 대한 서평에서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제 3편 제 1, 2권에서 긴 시간을 다루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⁵²⁾ 한편 고려 후반에 해당하는 5권부터는 제 3편 편찬의 중심사료인 高麗史·高麗史節要의 내용이 충실할 뿐만이 아니라 ‘高麗朝 末期의 文集으로 유명한 稼亭集, 益齋集 등이 이용할 수 있는 範圍에 들어와 이용 사료가 증가했음을 밝히고 있으며,⁵³⁾ 이는 『朝鮮史』 제 3편의 각 권별로 활용한 사료에도 반영되어 있다.

고려시대의 사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초반 두 권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다룰 수밖에 없었음을 밝히는 것은 지금의 시점에서도 수긍할 만하다. 그런데 이처럼 사료 부족을 이유로 1·2권에 고려시대의 절반 정도를 다루면서 편찬 관계자들이 이 시기의 특징으로 들었던 것은 대외관계, 특히 북방민족과의 관계였다.

52) 末松保和, 1933, 『書評 朝鮮史 第3編 第1卷·第2卷』, 『靑丘學叢』 11, 164쪽.

53) 末松保和, 1934, 『書評 朝鮮史 第3編 第5卷』, 『靑丘學叢』 17, 210쪽.

太祖即位當初에는 渤海人の 投化, 女眞討伐, 遼·宋 間の 高麗, 계속하여 金·宋 間の 高麗, 高麗가 사이에서의 役割은 容易했다고 할 수 없다. 이로서 그 후에 올 것 - 元·宋 間の 고려, 日·元 間の 高麗와 비교해 보아도 이 兩卷에서 담은 이들 諸國에 관한 豊富한 記事에 의해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이는 단지 高麗와 諸外國의 關係에 관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宋과 遼, 宋과 金의 關係 推移가 흥미 깊게 보여지는 것이다.⁵⁴⁾

『朝鮮史』 제 3편 1·2권에 대한 위와 같은 평가는 1·2권만이 아니라 편찬 관계자들이 제 3편을 편찬함에 있어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었는가를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이나바가 구상한 만선사가 만주와 조선의 일체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漢民族, 蒙古民族, 東胡系 民族 3자의 관계 속에서 동아시아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전쟁을 만선을 하나로 묶는 기재로서 인식하던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⁵⁵⁾ 위와 같이 宋(漢民族)·元(蒙古民族)·金(東胡系 民族)과 고려의 관계에 집중하는 편찬 태도는 지극히 만선사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입장은 당시 大藏經彫印에 관한 사료를 다루는 태도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현종에서 문종대 사이에 대장경이 만들어졌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 3편의 1권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편찬 관계자 중 하나였던 스에마쓰도 밝히고 있듯이 年月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편년사인 『朝鮮史』에 넣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장경 관련 사항이 빠진 것에 대해 편찬 관계자들 역시 매우 애석해 했다. 즉 편년사라 할지라도 대장경 관련 기록을 넣는 것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이 사항이 빠진 것은 ‘編者의 態度如何’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장경 조판과 관련된 사항이 없는 것만으로 이야기 하자면 ‘本編이 매우 用心 깊게 편찬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라며 『朝鮮史』 편찬 관계자로서 『朝鮮史』의 완결성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고 있다.⁵⁶⁾ 이처럼 당시 ‘編者의 態度如何’에 따라 넣을 수도

54) 末松保和, 1933, 『書評 朝鮮史 第3編 第1卷·第2卷』, 『靑丘學叢』 11, 164~165쪽.

55) 정상우, 2010, 앞의 논문, 7~13쪽.

56) 末松保和, 1933, 『書評 朝鮮史 第3編 第1卷·第2卷』, 『靑丘學叢』 11, 165쪽.

있었던 대장경 관련 사항은 실리지 않았던 반면 만선사적 관심에서 중요한 사항들인 宋·元·金과 고려와의 관계를 제 3편의 특징으로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은 이 부분의 주안점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려에 대한 元의 침략과 간섭이 있던 시기를 다루는 『朝鮮史』 제 3편의 후반은 만선사적 시각이 보다 선명히 나타난다. 高宗 11년(1223)부터 忠烈王 5년(1278)까지를 다루는 4권에 대해 이나바는 직접 이 책의 서평을 쓰며 몽고 세력의 강화를 이 시기의 특징으로 꼽았다. 주로 활용한 자료 역시 高麗史, 高麗史節要 외에 東國李相國集과 같은 한국측 사료와 더불어 元史 및 元史 高麗傳의 藍本인 元高麗記事, 元史新篇, 國朝文類(元文類) 등 중국측 자료였음을 특필하고, 이 시기를 ‘江都時代’라고 규정하였다.⁵⁷⁾ 이러한 사항은 당시 元의 침입과 강화도로의 천도가 있었던 시기이니 만큼 납득할 수 있는 것이며, 사료에 관해서도 꼼꼼하게 수집·정리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강조된 것은 다음과 같다.

元宗8년 이하에는 本編(제3편 : 인용자)의 主要部分이라고 생각되는 日元關係가 次第로 展開되었다. 世祖의 懷柔手段은 效果를 보이고, 黑山水道는 探查되어 濟州의 耽羅國主는 大都에 朝貢했으며, 더욱 日本招諭의 준비였다. 史料로서 元高麗記事를 忠實하게 수록하는 것이 特色이어서 各別히 奈良東大寺尊勝院 所藏 蒙古國牒狀을 寫眞으로 插圖한 것과 같이, 종래 學界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했다고 해도 좋다.⁵⁸⁾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이나바가 『朝鮮史』 제 3편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日元關係’였다. 이 시기의 『朝鮮史』를 편찬함에 있어 주요 관심사는 고려와 원의 관계 혹은 삼별초로 대변되는 고려의 저항이 아닌 일본과 원의 관계였다. ‘黑山水道の 探查’, ‘耽羅國主의 大都 朝貢’과 같은 원의 대고려 정책을 모두 ‘日本招諭’를 위한 것, 즉 원과 일본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57) 稻葉岩吉, 1933, 『書評 朝鮮史 第3編 第4卷』, 『靑丘學叢』 14, 188쪽.

58) 稻葉岩吉, 1933, 『書評 朝鮮史 第3編 第4卷』, 『靑丘學叢』 14, 189쪽.

파악하면서, 편찬 관계자들은 원이 고려를 통하여 일본에 사신을 보낸 것이 이 시기를 특징짓는 사건으로 꼽고, 이를 충실히 수록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

이는 제3편의 5권도 마찬가지이다. 忠烈王 6年(1279)에서 忠惠王 元年(1330)까지 52年間을 다루는 5권을 소개하며 편찬 관계자들은 고려시대를 다루는 앞부분에 비해 많은 사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이 시기의 ‘大事件’으로 꼽은 것은 바로 원의 제 2차 일본정벌이었다.⁵⁹⁾ 실제로 위의 인용문에서 제 3편 후반부의 주요부분이라고 제시한 元宗 8년 이하의 부분에는 몽고의 사신이 고려의 정부를 통하여 일본에 압력을 가하고 정벌한 것에 대한 사항은 강문이 매우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⁰⁾

이처럼 원과 일본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에 필요한 고려시대의 사료를 주요하게 다룬 『朝鮮史』 제 3편의 후반부가 발간될 즈음 이나바는 『日麗關係』라는 연구서를 출간하였다.⁶¹⁾ 제목 그대로 고려와 일본의 관계를 6장으로 나누어 서술한 이 책에서 이나바는 제 4장 ‘蒙古襲來’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⁶²⁾ 그 내용을 보면 쿠빌라이는 자신의 숙원인 南宋의 정벌을 위해 병력을 아낄 목적으로 고려에 대한 회유책을 구사하였으며, 그 결과 강화도로 피신했던 고려의 조정이 개경으로 돌아왔고, 몽고는 고려의 병력을

59) 末松保和, 1934, 『書評 朝鮮史 第3編 第5卷』, 『靑丘學叢』 17, 210쪽.

60) 『朝鮮史』의 강문은 매우 건조하고 간략하게 기술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제 3권도 마찬가지로 한 줄로 이루어진 강문도 대단히 많으며 길어도 4~5줄 정도이다. 그렇지만 元과 고려, 또 고려를 통한 일본에 대한 접근에 대한 부분은 한 페이지를 넘어갈 정도로 매우 자세하며, 사료를 거의 그대로 기술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쿠빌라이의 초상과 國朝文類, 당시 학계에 공개되지 않았던 ‘奈良東大寺尊勝院 所藏 蒙古國牒狀’을 『朝鮮史』의 중간에 사진으로 제시하였다(朝鮮史編修會 編, 『朝鮮史』 第3編 第4卷의 圖版 7, 8, 9). 특히 3장으로 이루어진 奈良東大寺尊勝院 所藏 蒙古國牒狀은 특별한 크기로, 사진 그 자체만으로도 내용을 판독할 수 있도록 3장 모두를 제시하고 있다.

61) 『朝鮮史』 제 3편의 4, 5권은 각각 1933년 9월, 1934년 7월, 6, 7권은 모두 1935년 3월에 간행되었으며, 이나바의 『日麗關係』는 岩波講座에서 발간하던 日本歷史 시리즈의 한권으로 1934년 2월에 출판되었다.

62) 『日麗關係』의 목차는 ‘1. 無交涉時代 / 2. 寺院文化 / 3. 刀伊 및 女眞 / 4. 蒙古襲來 / 5. 倭寇 / 6. 餘說 및 其他’이다.

자신들이 사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쿠빌라이는 ‘半島의 地形이 伐宋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海上에서 南宋을 伐하기 위해 고려를 활용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즉 쿠빌라이가 송을 정벌함에 있어 우려하던 것은 송이 일본과 연결되는 것이었으며, 원이 고려에 대해 흑산도의 水道를 조사한다거나 耽羅總管府를 설치한 것은 모두 송과 일본의 연락을 막아 해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처럼 당시 원의 대 고려 정책은 모두 송이 일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招諭와 정벌이 나타난 것으로, 招諭 당시 몽고에서 보낸 牒狀을 보면 당시 대륙의 세력이 일본 세력을 우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⁶³⁾ 이러한 이나바의 연구 내용과 『朝鮮史』의 제 3편의 후반부를 소개하며 부각했던 사항, 『朝鮮史』 제 3편 4, 5권에서 제시한 도판 등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그런데 대륙과 일본의 관계에 주목하며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사의 높은 위상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이나바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만선사였다. 즉 이나바가 구상했던 만선사는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의 확립·전개 과정에 위치하며, 일본의 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일본사의 타자로서 만주와 조선의 역사를 재편한 것이기도 했다. 그의 연구 과정을 보면 시종일관 일본과 대륙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만선사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 거론하는 주요 역사적 국면은 ‘海東의 강자’로서 일본의 위상을 설명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⁶⁴⁾ 이러한 지적을 고려해 볼 때 『朝鮮史』 제 3편은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사건에 방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편찬 태도는 지극히 만선사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나바가 만선사적 시각에 입각하여 한국사를 연구해 나아가는 데에 편수

63) 稻葉岩吉, 1934, 『日麗關係』, 岩波講座, 20~34쪽. 한편 이 책에서 이나바가 강조하고 있는 사료 중 牒狀은 앞선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朝鮮史』 제 3편 4권에서 사진 도판으로 첨부한 자료이다. 이 역시 이나바가 『朝鮮史』 편찬을 위해 수집한 사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만선사적 조망을 확대했음을 말해 준다.

64) 정상우, 2013, 앞의 논문, 340~348쪽.

회와 『朝鮮史』 편찬은 그 기반이었으며, 그는 이를 토대로 광해군대만이 아니라 고려시대까지 자신의 만선사적 조망을 소급·확장해 나아갔던 것이다.

한편 『朝鮮史』 제 3편에서 편찬의 역점이 어디에 두어졌었는지는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의 특징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사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는 고려 전반부, 즉 『朝鮮史』 제3편의 1·2권에 이용된 한국측 사료가 오히려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묘지명과 탐비 등과 같은 금석문을 다수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려시대 금석문은 고려 후반에 해당하는 것이 다수이며, 이는 당시에도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⁶⁵⁾ 그렇다면 고려의 후반기에 해당하는 제 3편 3권의 이하에서 금석문의 활용은 늘어나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금석문의 활용은 눈에 띄게 감소하는 반면 외국 사료의 활용은 늘어난다. 특히 ‘日本招諭’를 비롯, 이나바가 보기에 伐宋을 위한 元의 對 일본 견제를 위한 각종 조치들과 고려를 통한 일본 공격이 벌어진 시기를 다루는 제 4권의 경우 급격하게 일본측 사료의 활용은 늘어난다. 즉 제 3편 편찬 관계자들은 고려 후반으로 갈수록 고려 내부의 정치·사회 등의 사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금석문을 통해 역사를 정리하기 보다는 元 또는 일본의 대 고려정책과 관련된 사료를 통해 당시를 정리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사건과 사료들을 토대로 고려시대가 연구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료 활용의 양태 역시 『朝鮮史』 제 3편의 역점이 대외 관계, 송, 금, 원과 고려의 관계 및 원·고려와 일본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에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상의 사항들을 통해 볼 때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朝鮮史』 제 3편은 이편의 편찬을 총괄했던 이나바의 구상과 밀접히 호응했으며, 이나바는 이를

65) 『朝鮮史』 제 3편이 편찬될 당시에도 상당수의 금석문이 세간에 알려져 있었다. 이미 葛城末治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19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朝鮮金石總覽』에는 244종의 고려시대 금석문을 소개하고 있다. 『朝鮮史』 제 3편에서는 80종의 금석문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중 73종이 『朝鮮金石總覽』에 실려 있다. 즉 당시 알려진 고려시대 금석문 가운데에서도 주로 고려 후기의 것에 해당하는 170여 종의 금석문은 활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통해 자신의 만선사적 관점을 시기적으로 확대·적용하며 자신의 연구를 진행했던 것이다.

IV. 결어

지금까지 『朝鮮史』 편찬을 전후한 시기 『朝鮮史』 편찬 사업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던 이마니시와 이나바의 한국사에 대한 인식 차이와 이것이 『朝鮮史』 편찬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특히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朝鮮史』 제 3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필자의 역량이 부족하고 사료에 한계가 있다 보니 부족한 면이 있지만 향후 식민사학에 대한 연구와 당시 학계의 지형을 그려볼 때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점 이후 조선총독부에서 주도한 각종 조사 사업이나 ‘반도사 편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이마니시는 강점 전후 유폐되었던 일선동조론류의 논의에 반대하면서 한일의 밀접한 관계를 ‘교통’, ‘통상’ 등으로 표현하였다. 그렇지만 강점 이후 조사·연구 활동을 거치며 한국의 주류 인종을 반도의 남부를 중심으로 하는 ‘韓種族’으로 정의하는 한편 ‘Korea-Japanese group’, ‘朝鮮-日本團’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이들과 일본인들을 종족적으로 하나로 아울러었다. 그는 일본과 동족이었던 韓種族의 역사 - 바로 신라와 백제의 역사가 바로 한국사라는 생각에서 북방 퉁구스종이었던 고구려를 비롯한 발해의 역사를 한국사에서 배제했을 뿐만이 아니라 단군은 평양의 神人으로, 단군 이야기는 북방민족의 민속적 특징을 띠는 것으로 ‘日韓族’에게서는 볼 수 없다며, 단군은 韓種族과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처럼 한국사를 韓種族의 역사로 보았던 이마니시의 생각은 그가 편찬의 전권을 휘두를 수 있었던 『朝鮮史』 제 1, 2편에 반영되었다. 『朝鮮史』는 민족 - 韓種族이 중심이 된 민족 - 을 중심으로 편찬하며, 이들을 설명하는데 필요하기 때

문에 고구려의 역사는 포함되지만 발해는 그렇지 않아서 제외했다는 그의 설명이나, 단군과 관련된 삼국유사의 기록을 고구려 동명왕조 뒤에 배치하여 고구려와 연관지은 것은 1910년대 이래 이마니시가 주장했던 歷史像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반면 『朝鮮史』 편찬 사업이 개시되며 한국에 부임하게 된 이나바는 이마니시와는 상당히 다른 시각에서 한국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이 한국사를 '일본사의 범주에서 접근하는 것을 비판하며 한국사를 대륙·만주와의 관련 속에서 '東洋史化'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한국사를 연구함에 있어 대륙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반도라는 '토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생각에 입각해 한국의 정치·경제·민족 등 모든 요소는 대륙·만주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나바에게 고구려는 만선에 걸쳐 있으며 신라나 백제에 앞서 문화 발달을 이룬 국가로, 만선일가를 위해 식민지 조선인들이 시급히 떠올려야 할 대상이었다. 이렇게 만선관계에 입각하여 고구려사로 대변되는 북방의 역사를 중요시하는 이나바가 『朝鮮史』 편찬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이전에는 '반도사 편찬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발언들 - 단군을 비롯한 발해 등 북방의 역사의 수록 여부를 묻는 조선인 위원의 질문에 북방의 역사를 전폭적으로 실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들 - 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은 이마니시가 주임인 『朝鮮史』 제 1, 2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나바의 답변대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한편 편수회의 사정을 알려주는 사료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朝鮮史』 편찬 과정에서 편찬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朝鮮史』 전체에 공통되는 사관을 마련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朝鮮史』 편찬자들의 한문 해독능력이나 제한된 사업 기간, 무엇보다도 이마니시와 이나바로 대변되는 주요 관계자들의 상반되는 한국사관 등을 고려할 때 통일적 시각 하에 『朝鮮史』가 편찬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그만큼 각 편의 주임의 영향력은 커져 갔다. 더군다나

이나니시 사후로 그의 영향력이 전혀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편찬된 『朝鮮史』 제 3편 이하는 1, 2편과 얼마든지 성격을 달리할 수 있었으며, 이나바가 주임을 맡은 『朝鮮史』 제 3편은 그가 품고 있던 만선사적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나바는 『朝鮮史』 제 3편의 주임을 담당하기 이전부터 반도에 대한 만몽의 영향력이 강했던 시기로 거란, 여진, 몽골 등 만몽지역의 민족이 끊임 없이 등장했던 고려시대를 주목했으며, 이러한 그의 생각은 『朝鮮史』 제 3편에 반영되었다. 편찬 관계자들이 『朝鮮史』 제 3편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건으로 遼·金·宋·元 등과 고려와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고 있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군다나 제 3편의 후반부, 元의 침략이 강했던 시기의 『朝鮮史』에서 편찬 관계자들이 중요시 했던 것은 고려의 항쟁이나 국내 정치 변화를 알려주는 사료가 아니라 만선사적 조망에서 중요시되었던 일본과 元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료들이었다. 이는 일본사의 타자로서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漢民族, 蒙古民族, 東胡系民族 3자의 관계로 재구성하는 가운데 일본사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이나바의 만선사적 구상, 또 『朝鮮史』 제 3편이 간행될 당시 발표된 이나바의 연구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들이었다.

고려시대에 대한 사료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특히 고려 전기일수록 더욱 그러하며 그나마 후기로 감에 따라 몇 개의 문집류를 비롯하여 금석문들도 증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朝鮮史』 제 3편의 후반으로 갈수록 편찬에 활용된 한국측 사료가 증가해야겠지만, 실체는 그 반대이다. 즉 후반으로 갈수록 한국측 사료, 특히 금석문의 활용은 감소하는 반면 대륙과 일본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에 필요한 외국 사료, 특히 일본측 사료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료의 활용 역시 간접적으로나마 『朝鮮史』 제 3편 편찬시 여기에 실을 사료를 선별함에 있어 만선사적 관점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이나바는 자신이 추구했던 만선사적 관점에서 고려시대를 조망하는 가운데 『朝鮮史』 제 3편의 후반으로

갈수록 元 또는 일본과 관련된 사건을 자세히 정리하고 그와 관련된 사료의 소재를 알려주어, 향후에도 이를 통해 이 시기가 조명되기를 희망했다고 하겠다.

한편 식민사학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고대사와 조선시대를 가리켜 왔다. 한일의 민족적 근친성과 과거 일본의 반도 지배를 주장하는 ‘일선동조론’이나 ‘임나일본부’, 근대화 실패의 원인으로 이야기되는 ‘당파성론’이나 조선시대 신분, 인구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한 ‘정체성론’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고려시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다. 실제로 식민지기 고려시대와 관련된 연구는 고대사나 조선시대에 대한 연구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륙의 정세가 급박했던 고려시대는 한국사의 타율성과 사대성을 강조하고자 할 경우 그 왜곡이 가장 두드러질 수 있는 시기이며,⁶⁶⁾ 만선사적인 조망에서 주목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식민지기 일본인들의 고려시대에 대한 언급과 연구는 식민사학의 역사 왜곡과 일본의 근대 역사학의 전개라는 측면에서도, 또 고려시대에 대한 歷史像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삼겠다.

66) 정상우, 2017, 『일제 하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사에 대한 通史的 이해 - 1930년대 중반의 저작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4, 98쪽. 이에 따르면, 비록 식민지기 발간된 통사들에 한정되지만, 고려시대는 대외 관계에 중점을 두어 서술되었으며, 대외 관계의 복잡다단함을 시대의 특징으로 꼽고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朝鮮史編修會, 1932~1935, 『朝鮮史』 第3編 1~7卷
朝鮮史編修會 編, 編輯部 譯, 1985,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시인사
朝鮮史編修會, 『大正15年以降 編修打合會書類綴』; 『朝鮮史編修會委員會議事錄』
靑丘學會, 『靑丘學叢』
今西龍, 1910, 『檀君의 說話에 就いて』, 『歷史地理 朝鮮號』, 三省堂書店
_____, 1910, 『日韓上代文化と其關係に就て』, 『朝鮮』 32, 朝鮮雜誌社
_____, 1918, 『任那に就て』, 『朝鮮叢報』
_____, 1935, 『朝鮮史の栞』
_____, 1970, 『檀君考』, 『朝鮮古史の研究』
稻葉岩吉, 1925, 『朝鮮文化史研究』
_____, 1925, 『朝鮮民族史』, 『朝鮮史講座 - 分類史』
_____, 1927, 『朝鮮의 領土問題, 民族問題 及 鮮滿文化關係에 就하여』(1)·(2), 『朝鮮』
121·122
_____, 1934, 『日麗關係』, 岩波書店
旗田巍 編, 1969, 『シンポジウム 日本と朝鮮』, 勁草書房
中村榮孝, 1969, 『朝鮮史の編修と朝鮮史料の蒐集 -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の事業』, 『日
鮮關係史の研究』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 선인

2. 연구성과

- 한명기, 1998, 『폭군인가 현군인가 - 광해군 다시읽기』, 『역사비평』 44
박찬홍, 2010, 『『朝鮮史』(朝鮮史編修會 編)의 편찬체제와 성격 - 제1편 제1권(朝鮮史料)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99
_____, 2015, 『『조선사』(조선사편수회 편) 제2편(신라통일시대)의 편찬 방식과 성격 - 『삼국사기』 『신라본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45
정상우, 2010, 『稻葉岩吉의 ‘滿鮮史’ 체계와 ‘朝鮮’의 재구성』, 『歷史教育』 116
_____, 2011, 『조선총독부의 『朝鮮史』 편찬 사업』,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_____, 2013, 『滿鮮史와 日本史의 위상』, 『韓國史學史學報』 28
_____, 2014, 『『朝鮮史』(朝鮮史編修會 간행) 편찬 사업 전후 일본인 연구자들의 갈
등 양상과 새로운 연구자의 등장』, 『史學研究』 116

- _____, 2017, 『일제 하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사에 대한 通史의 이해 - 1930년대 중반의 저작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4
- 장 신, 2009, 『조선총독부의 朝鮮半島史편찬사업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
- 도면희, 2014,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책과 한국사 구성 체계』, 『歷史學報』 222
- 정준영, 2016, 『식민사관의 차질 - 조선사학회와 1920년대 식민사학의 제도화』, 『韓國史學史學報』 34
- 허태구, 2017,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의 丁卯·丙子胡亂 관련 중 연구 검토』, 『朝鮮時代史學報』 81

투고일 : 2017년 11월 21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2월 22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22일

■ Abstract ■

The Correlation between P'yŏnsuhoe's Compilation
of *Joseonsa* and Manchuria-Korea History
: A focus on the Third Volume of Goryeo Dynasty

Jeong, Sang woo (Hallym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correlation between P'yŏnsuhoe's *Joseonsa* (vol.3) that led by Inaba Iwakichi's editing, who was representative of a Manchuria-Korea-historian and Manchuria-Korea-History. Regarding Korean history, Inaba who was stationed in Korea for the purpose of compiling the *Joseonsa* and former Korean-history-researchers representing Imanishi Ryu maintained different views. Imanishi described the Korean history as one of the Han ethnic group, which was akin to that of a Japanese ethnic group living in the southern part of the peninsula. On the other hand, Inaba criticized Japanese researchers who studied Korean history as one tied to Japan's history. He thought Korean history should be studied as a part of Oriental history and insisted that Korean history should be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Manchuria and Mongolia. With the *Joseonsa* vol.3, Inaba served as the chief and reflects his view of Korean history. Before he taking charge of *Joseonsa* vol.3, Inaba regard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ryeo dynasty as tied to the appearance of Manchuria and Mongolia people, such as the Kitan, Jurchen, and Mongolians. Inaba's perspective on the Goryeo Dynasty was reflected in *Joseonsa* vol.3. The editors of *Joseonsa* vol.3 also regarded the relationship between Liao, Jin, Song, Yuan and Goryeo as the most significant components in *Joseonsa* vol.3. In particular, with the so-called 'the Goryeo Dynasty's War Period against Mongolian Invasion', the editors of *Joseonsa* vol.3 relied on historical materials that emphas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Yuan and Japan, rather than that of the Anti-Mongol Struggle or changes in domestic politics of

Goryeo. This coincided with Manchuria-Korea historical plans to raise the status of Japanese history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Northeast Asian history into the tripartite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of China, Mongolia and Donghu (東胡). And the editors' emphasis coincided with Inaba's work published at the time of the compilation of *Joseonsa vol.3*. The general view is that few historical materials are found in early Goryeo period and more materials such as collections of writings, epigraph are found in the late. However, the historical materials used in *Joseonsa vol.3* point to the opposite. In the latter half of Goryeo, the use of Korean historical materials (especially epigraph materials) decrease, while the use of foreign historical materials (mostly Japanese materials) increasingly point to a relationship with Japan. Indirectly, the tendency of using historical materials with Manchuria-Korea historic perspectives was used in the compilation of *Joseonsa vol.3*.

Key words : *Joseonsa vol.3*, Inaba iwakichi(稻葉岩吉), Imanishi Ryu(今西龍), Manchuria-Korea-History
(滿鮮史)